

#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개 모집

24일~2022년 2월 3일까지 경쟁·비경쟁·전북지역 공모 부문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3일 오후 5시까지 제23회 상영작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분야는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등 국내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그리고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 대상 지역공모 부문이다.

모든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은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 구분 없이 출품 가능하다. 2021년 1월 이후 제작된 영화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일 이전에 국내에서 상영된 적 없는 코리아 프리미어 또는 그 이상의 프리미어 조건을 갖춘 작품이어야 한다.

아 한다.

한국경쟁 부문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만 출품할 수 있으며, 비경쟁 부문 출품작은 감독의 연출작 횟수에 상관없이 장편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으니 출품 시 유의해야 한다. 상영시간 기준 40분 미만을 단편으로, 40분 이상 작품은 장편으로 구분한다.

지역공모 출품은 작년까지 전북 지역 기반 연출자(감독)에 한하여 지원을 받았던 데 반해,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제작자(프로듀서)까지 자격 조건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 기반 창작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자 혹은 제작자가 전북 지역에 주소

지를 두었거나, 전북 지역에 주소를 둔 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전북 지역에서 50% 이상 촬영한 작품이면 지원할 수 있다. 지역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또는 비경쟁부문인 코리아시네마 섹션에 초청되어 관객과 만난다.

자세한 출품 규정 및 저작권 관리 규정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entry.jonjufes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출품작 접수 또한 온라인 출품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부 심의와 예심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경 본선 진출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팀(02-2285-0562, koreanfilm@jonjufest.kr)에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진포대첩 전장지 익산 옹포 역사적 가치 재조명

익산시·원광대 익산학연구소, 학술대회 열고 발표·종합토론

익산을 중심으로 고려말기 왜구토벌의 전기를 마련한 진포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된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는 18일 진포대첩의 전장지로서 익산 옹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익산 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진포대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진포대첩 전장지 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 익산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기초장관을 맡은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임형수 총북대학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하고 허인욱 한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표자, 토론자 등 관계자 20여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그 외 관람은 오후 1시 30분에 유튜브(채널명: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실시간 중계를 통해 참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부에서 진포대첩의 발생 배경, 왜구의 침입과 대응양상, 전장위치, 진포대첩 이후의 전황 등 진포대첩 전반적인 전개 상황을 검토한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유역 침입과 고려의 대응양상>과 조선초기 전라도 지역의 조운제 정비과정에서 진포지역의 특성 창 개찰에 대해 살펴 본 <조선 태종대 조운제 정비의 재정사적 맥락>에 대해 다뤄졌다.

제2부에서는 지역문화의 콘텐츠 관점에서 진포대첩의 활용방안을 제시한 <진포대첩 현장과 지역문화 콘텐츠 방향>과 함께 특별강연으로서 진포대첩에 얽혀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한 <진포대첩의 현장>에 대해 토론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는 18일 진포대첩의 전장지로서 익산 옹포의 가치를 조명하는 '익산 옹포, 진포대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 온라인 개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17~30일 2주 간 '2021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JBPAF)'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공연예술페스타(이하 페스타)는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의 제작 발표

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다.

2021년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관객 거리 두기 공연, 무관중 공연 등으로 진행했다.

제작된 8개 페스타 작품은 재단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c/jbct2016)을 통해 공개하며,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또는 '2021 전라북도

공연예술페스타'를 검색해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페스타 메인 배너를 누르면 웹페이지를 통해 8개 작품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좀처럼 관람하기 어려웠던 전라북도 우수 창작공연을 만날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게임에서 미래 이정표를 찾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오늘 '게임 트렌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라북도 게임산업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게임 트렌드 온라인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진행한다.

'게임에서 미래 이정표를 찾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세미나는 △게임 전문가들의 게임 트렌드 강연 △전라북도 게임 기업 신작 발표가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

18일 오후 4시에 진행된 게임 트렌드 사전특강에서는 '초기 창업(개발자)의 게임 개발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네시사십삼분 권혁우 이사의 강연이 펼쳐지며,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크리에이터가 바라보는 요즘 게임 트렌드'라는 주제로 인기유튜버 비누의 강연에 이어 10시 30분 '게임 성공 전략 및 입사팁'이라는 주제로 엔씨소프트 장현영 상무의 강연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게임기업 신작 발표 시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준비한 신작을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전라북도 게임산업의 성장과 도민들의 게임 문화 지식기반 확장에 도움이 되는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북 게임 기업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접속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남원시립김병미술관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동편제 소리꾼 민혜성과 서울대 국악과 교수 안나 예이츠, 카메룬 출신 외국인 로르 마포가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유리피연 소리꾼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이야기'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편제 소리꾼 민혜성은 2007년부터 유럽에서 판소리를 교육하게 된 사연, 다국적 제자들 소통하며 겪은 잊지 못할 에피소드 등 판소리에 매료돼 판소리 연구를 시작한 일화를 들려준다. 안나 예이츠 교수는 외국인이지만 영

국 런던에서 처음 접한 판소리에 매료되어 서울대 국악과 교수가 되기까지의 사연을 들려 주고, 카메룬에서 태어난 프랑스 국적의 로르 마포는 파리 한국 문화원에서 판소리를 듣고 그 매력에 이끌려 판소리를 배우게 된 일화를 들려준다.

더불어 민혜성 명창의 단가 <인생백년>, 안나 예이츠의 <홍보가 중 홍보가 늘보에게 비는 대목>, 로르 마포 <홍보가 중 늘보에게 매 맞는 대목> 등 동편제의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은 사전예약제(063-620-2329, 선착순 60명)로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 선정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관장 이재정)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문화예술 직업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중 신규기획형 프로그램에 추가 공모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은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예술·기술 융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문해력 함양 및 선도적인 융합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회관은 이번 공모사업에 혼합현실 큐레이팅 체험 '나도 아트 큐레이터'로 최종 선정돼 총 7천만원 지원금을 받아 완주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큐레이터 직업·진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